

# 광주시, 무등산권 지질공원 세계화 잔걸음

## 지질공원 알리고 체계적으로 보전해 관광명소 조성 목표 설정

유네스코가 지정한 무등산권 지질공원에 대한 인식 증진, 자원의 체계적 보전, 이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등을 전략 목표로 설정해 지오투어리즘(geotourism)의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전담기구 설립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 검토를 위해 광주전남연구원에 수시과제를 의뢰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지난 2017년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대비해 발간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지역 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집중형 사회환경연구실장이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지질공원의 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지질명소와 문화명소를 연계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질공원의 취지에 따라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유네스코는 무등산권 국가지질공원의 지질학적, 경관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최근 세계 137번째, 국내 3번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먼저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무등산권 지질공원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가 36.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안내책자, 교육용 교재, 모바일 앱 개발,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홍보 전략이 시

급하다는 것이다. 교사 및 공무원 연수, 지질교육 시범학교 운영, 체험학습도구 개발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기념해 국제 심포지엄, 지질 트래킹, 사진공모전, 지오 페스티벌 등을 개최해 지질공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권역별 탐방안내소, 지질 트레일 등 탐방기반시설을 확충해 국내·외 탐방객을 분산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세계적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지질명소 주변의 농·특산물, 음식, 펜션, 체험, 축제 등 지역 관광상품을 지오 브랜드로 통합 개발하고, 지오투어리즘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걸맞은 통합적 보전 및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무등산권지질공원위원회 확대 구성, 지질공원사무국 설치, 홈페이지 재구축 등의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오는 7월중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위원, 국내외 지질공원 전문가, 지질공원 해설사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세계지질공원 비전 선포식 및 국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무등산 남도피야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제 플랫폼센터, 담양·화순에 권역별 탐방안내센터를 각각 신설하고, 5월중 무등산 정상개방과 연계해 범 시·도민 잔치한마당도 개최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오존 경보제' 10월까지 연장

### 미세먼지 저감 위한 대기측정지역 확대도

전남도가 '오존 경보제' 시행 기간을 연장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 측정 지역도 확대한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대기중 오존농도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10월15일까지 6개월간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운영 기간은 전년에 비해 1개월 늘어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를 위해 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을 통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해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면 시·군 등 유관기관에 경보상황을 신속하게 전출할 예정이다. 해당 시·군은 마을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발령상황을 전파하게 된다.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해 도민의 생활환경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대기 중 오존농도가 1시간 평균 0.120ppm 이상일 때는 주의보, 0.300ppm 이상일 때는 경보, 0.500ppm 이상이면 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오존경보는 주로 4~10월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지난해 전남지역에는 16회 주의보가 발령됐다. 다만, 경보나 중대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측정망을 확대, 구축해 대기측정 지역도 기존 5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늘렸다.

이해준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은 "올해까지 대기측정망이 확대 구축됨에 따라 2019년부터는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햇빛이 강한 11~16시께 주로 고농도가 발생하므로 이를 신속히 전파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천·영산강변 자전거길

### 21일부터 거점터미널 운영

광주천과 영산강변 자전거길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강변 축 자전거 거점터미널'이 오는 21일부터 운영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운영 장소는 용산교·중앙대교·동천교 등 광주천변 3곳과 첨단교·산동교·어등대교·극락교·승촌보 등 영산강변 5곳을 포함, 총 8곳이다.

각 거점터미널에 자전거 전문가 두명을 배치해 11월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자전거·안전장구 무료 대여는 동천교, 첨단교, 산동교, 극락교 등 4곳에서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교량 아래 여유 공간에 자전거 통합서비스센터인 '강변 축 자전거 거점터미널'을 마련, 해마다 겨울철을 제외한 4월부터 11월까지 자전거 무상 수리, 자전거·안전장구 무료 대여, 안전교육, 자전거 길 안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44회 운영해 2만2000여명의 자전거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김남근 시 도로과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리 등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거점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다"며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강원도 소방헬기 순직 공무원 추모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6일 오후 광산구 풍영정전 천변공원에서 열린 '강원도 소방헬기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에 참석해 헌화·분향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청춘이 상상한다. 광주는 ○○이다!

### 광주시 9월 '도시브랜드 발굴' 전국 대학생 대회 개최

광주의 도시브랜드를 대학생들의 시각으로 발굴하는 전국 규모 대회가 오는 9월 열린다.

광주시는 16일 "오는 9월 6일 열리는 '2018 전국 대학생 소통콘텐츠 경연대회'를 위한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인 이번 대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한국광고PR실학회가 주관한다. (주)제일기획, (주)기아자동차, 한국콘텐츠진흥원,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광주문화재단, (재)광주디자인센터 등 관련 기업·기관이 후원하기로 했다.

대상 1팀에게는 광주시장상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3팀에게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주)제일기획 사장상과 (주)기아자동차의 대표이사상, 문화콘텐츠분야 대표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상이 각각 수여된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청춘이 상상한다. 광주는 ○○이다!'로 시민들이 직접 도시브랜드 홍보를 주도하는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는 지도교수를 선임한 국내 광고·홍보·미디어 관련 학과 대학생이면 누구나 가능

하다. 영상 및 비영상 부문으로 접수된 작품들은 지역별 서류심사(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를 통해 본선 진출팀 14개 팀을 선정하고 오는 9월 6일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등 순위를 겨루게 된다.

시는 대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철저한 블라인드 테스트로 서류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본선에서는 관련 기업·공공기관 등의 마케팅·홍보 책임자로 구성된 전문심사단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를 위한 대학생 청중심사단을 위촉해 심사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공식 홈페이지 (<http://contents.gwang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박근혜 항소 안한다...자필 포기서 제출

### '1심 판결 수용'보다 '2심 거부' 표현한 듯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운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항소 포기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해 서울구치소 측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국선 변호인단에게도 항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공정한 사법절차라기보다는 정치보복으로 여겨지는 만큼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취지로 여겨진다.

박 전 대통령은 작년 10월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내내 재판을 거부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당시 형식상으로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한 모양새가 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상고)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근영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졌다. 형소법에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된다.

/연합뉴스

**임야삽니다!**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펜션·가든 부지 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지방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씩~ 하루 2번씩 식후 혈당상승 억제 약!!!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드립시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풋살구장 매매(급매)**

시청에서 9분, 전남대에서 14분!!

상황중 즉시이용 가능(최근완공)

풋살구장4면+사무실+손님휴게실+사위장+화장실

토지 약600평(구장 1천평, 주차장 600평)  
토지 임대(매매안함)  
(CCTV 등 시설 및 관련 물품포함)

◆ 시세가 3억 3천 ◆  
매매가 2억 6천 5백

구장운영자 010-6603-0680